

# 해남~진도 송전선로 건설 주민 반발 '난항'

### 한전, 전선 15km·송전탑 37기 설치...내달 보상 착수

### 진도 "철탑 인근 유적지 위치...지역 발전 저해" 반대

한국전력의 해남~진도 간 송전선로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이른바 다음달부터 보상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진도지역 주민들이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정주 여건까지 위협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협화음도 예상되고 있다.

전남도는 16일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154

kV 화원~진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 공고에 따라 한국전력 측은 전력공급을 위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철탑부지 및 선하지 중 사유지에 대해 보상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화원~진도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오는 2016년 6월까지 해남 화원 변전소에서 진도 변전소까지 154kV 송전선로 14.509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송

전탑은 모두 37기가 설치된다.

송전탑 부지 1만1808㎡, 선하지 21만 5071㎡ 등 311개 필지 22만6879㎡가 보상 대상으로, 보상액은 모두 8억원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를 매입·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구간에 대한 사용료 개념이기 때문에 보상액이 적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진도지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해남 쪽은 어느 정도 협의가 돼 보상에 들어갔으나 진도에서는 반대하고 있어 향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의회는 이 사업과 관련, 지난해 반대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와 지식경제부, 한전에 각각 발송한 바 있다. 당시 성명서에서 "송전탑 18기가 들어설 부지 인근은 군의 하나뿐인 관문이자 세계 해전사에 빛나는 이충무공의 명량대첩지, 망금산 관광성(전남도 지정 문화재 제204호), 강강술래터 등 호국유적지가 있으며, 앞으로 도시민들의 안식처가 될 전원마을이 조성될 지역"이라며 "한전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관광효과와 인구 유입 급감으로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북 소식

### 정읍시, 세계기후변화 교육센터 유치

#### 덕천면 황토현수련원 내

#### 대체에너지·생명자원 등 교육

정읍시는 6일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의 '세계기후변화 적응 체험 교육센터'를 덕천면 황토현수련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생존법과 대체에너지, 미래 생명자원 등을 교육한다. 미래 식량자원을 배양하고 수확해보는 체험시설도 갖는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와 미래 자원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도 정기적으로 열 예정이다.

센터가 설치되면 경북 김천과 경기 김포 등에 이어 국내에서는 네 번째다.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은 세계에서 감지되는 기후 변화를 수집해 분석하고, 최신 에너지기술을 확산시켜 기후변화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민간단체다.

정읍시는 이 단체와 함께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설과 센터의 운영 시기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전남도,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 10개년 계획' 수립

### 녹색쌈지숲·도시산림공원 등

### 대상지 일제 조사...순차 조성

전남도가 녹색쌈지숲, 마을숲, 도시산림공원 등 산발적으로 조성되는 생활권 주변 각종 숲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남도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월 한 달간 도로, 건물, 철로, 하천 주변의 자투리땅이나 도시 내외곽에 방치된 산림, 공단, 주요 병원, 요양소 주변과 폐기물 매립지, 하천 주변이나 하천 제방의 수목 식재 가능지, 각급 학교 부지, 마을 주변의 자투리땅 등 숲 조성이 필요한 대상지를 일제 조사한다.

숲 조성이 필요한 공간에 대해서는 녹지공간별로 생태연결축을 구성하고, 활

용과 이용 편의를 고려해 기능에 맞는 숲을 연차별로 조성할 방침이다.

올해 전남도는 97억원을 투입해 목포상동의 장미거리를 비롯해 녹색쌈지숲 28개소와 함평을 수호리 등 8개소에 도시산림공원을 조성 중이다.

한편 도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녹색쌈지숲 297개소(369.4ha)와 도시산림공원 20개소(141.7ha)를 조성한 바 있다.

윤병선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생활권에 조성되는 숲은 대기오염은 물론, 도시열섬현상, 미세먼지, 황사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쾌적한 생활공간은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하다"며 "밀도 있고 계획적으로 산림과 생활권 주변 녹지의 연결을 통해 녹색 인프라 구축을 착실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전주시, 보호수·노거수 정비사업 추진

#### 15개소 28본에 영양 공급

전주시가 든든하게 마을을 지켜준 보호수 정비사업에 나선다.

전주시는 6일 "올해 3800만원을 들여 남노송동, 여의동 등 15개소 28본(보호수 5본, 노거수 23본)에 대해 영양공급을 위한 수간주사, 가지치기 등 보호수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노송동 옛 파출소 인근에 위치한 보호수인 느티나무는 도로와 인접해 있어 생육환경이 열악하다. 이번 사업에서 수목주변 콘크리트 걷어내기, 부엽토 시비, 목재 웬스 설치 등 생육여건을 개선하여 건강한 수목으로 가꾸어 갈 예정이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해에도 3800만원을 들여 전주 향교, 조경단 등 11개소에



위치한 31주(보호수 13본, 노거수 19본)에 대하여 수간주사, 생육환경 개선용 위한 토양개량, 외과수술 등을 실시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보호수와 노거수는 조상의 얼이 살아 있는 귀중한 자산으로 써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자연 유산이다"고 말했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 지역 봉사 '구슬땀'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인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가 지역민과 이전기관과간 상생 발전을 위해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통공사 경영지원팀은 최근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농촌 마을가꾸기 행사와 사회복지 시설에 김치 전달식을 가졌다.

유통공사 경영지원팀은 산포면 신도2리와 봉황면 철천3리, 황룡리 3개 마을에 영산홍·자산홍 1500본을 심고, 사회복지 시설인 금성원 화단에 화초 200본을 식재하는 등 농촌 마을 가꾸기 행사를 실시했다. 또한 금성원을 비롯해 22개 사회복지 시설에 김치 4500kg을 전달했다.

유통공사는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농촌마을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5월에 신청사를 준공한 후 8월에 직원 322명이 이전할 예정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순천만에서 꽃마차 타세요

'순천만 정원'을 찾은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꽃마차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순천시는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장을 새롭게 단장해 '순천만 정원'으로 이름을 변경해 지난날 20일 재개장했다.

/순천=예정열기자 jiyi@

### 순창군, 훈몽재 주변 대나무·설중매 심어

#### 하서 김인후 업적·정신 계승

순창군이 하서 김인후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훈몽재 주변에 대나무와 설중매를 심었다.

순창군은 6일 "지난달 삼치면에 소재한 훈몽재 주변에 대나무 400주와 설중매 30주(800만원 상당)를 식재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서 김인후 선생의 후손인 울산 김씨문중(수당재단)에서 훈몽재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조성하게 된 것. 훈몽재에는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는 송·죽·매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

훈몽재는 순창군이 하서 김인후 선생의 학문적 업적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2009년 복원했으며 강학당인 훈몽재, 교육관인 자연당과 양정관, 삼연정(정자)이 있다.

또 지난해는 수강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집합교육시설과 취사장을 갖춘 양생당도 건립했다.

현재, 유학생과 어린이·성인·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예절교육과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여름 겨울방학에는 전국의 수학생들을 대상으로 강회를 열고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TV조선 특별기획드라마

# 보릿속의

격동의 시대를 살아야했던 이들의 사랑과 야망!

기획 TV조선 제작 강호 프로덕션 크리에이터 정성희 극본 이한호 연출 김상래

최수종 손태영 류진 최철호 이인혜 독고영재 정호빈

박상면 홍일권 김진근 이종수 공정한 이정용 최규한 이기찬 현석 김민경 전수경 이철민 고명환 정명환 이영후 이원석 조영서 김권 김예원 윤홍빈 김현준

4월 25일부터 매주 금·토 밤 11시 방송